



A GUIDE TO MARIANAS WITH MY PEOPLE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마리아나 여행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티니안, 로타에서 남국의 바캉스를 꿈꾼다.
여행 준비는 다음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족이냐, 친구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계절 휴양지에서 즐기는 2가지 여행법.

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는 법

〈더 트래블러〉와 마리아나관광청, 하나투어가 만든 여행 일정표,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가 여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따뜻하고 평화롭기 때문. 사시사철 평균 27도를 유지하는 기온은 마음을 노곤하게 한다. 곧 뭉쳐 있던 어깨 근육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긴다. 느려진 발걸음으로 바닷가를 걷고 해저에서 물고기와 눈 맞추며 걸국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지." 이제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것인가. 어린이와 노부모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전자도 좋고 수상 스포츠와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에 후자도 좋다. 이견 짜장면이나 짬뽕이나만큼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이 하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행복할 거다.

Family Vacation 가족과 함께하는 4박 5일

DAY 1 PC 골드카드를 이용해 하루 종일 리조트에서 놀기 & 워터파크 이용 → 360도 회전 레스토랑에서 사이판의 야경을 관람하며 저녁 식사 → 가라판 관광 및 쇼핑

DAY 2 가이드와 함께하는 정글 투어 → 딥스타 잠수함을 타고 해저 탐험 → 선셋 크루즈에 탑승해 일몰 감상하기

DAY 3 티니안으로 출발 → 바다낚시와 스노클링 즐기기 → 볼로 활을 찾아 브로드웨이 드라이빙 → 사가노 데핀야키에서 상성한 해산물 맛보기

DAY 4 로타로 출발 → 버드 생추어리와 통가 동굴, 스위밍 홀 등 관광지 투어 → 로타 리조트 &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 퍼시픽 레스토랑 & 바에서 로컬 음식 맛보기

DAY 5 사이판으로 이동 →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VS

Friends Getaway 친구와 함께하는 4박 5일

DAY 1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 마이크로 비치에서 태닝하기 → 모비딕에서 신선한 로브스터와 스테이크 즐기기 → 가라판에서 바 호핑

DAY 2 마니하 섬에서 해양 스포츠 즐기기 → T 갤러리에서 쇼핑 → 석양을 보며 비치 바에서 식사 및 칵테일

DAY 3 그로토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 → 스파에서 피로 풀기 & 네일 케어 → 가라판에서 기념품 쇼핑하기 → 샌드 캐슬 매직 쇼 관람

DAY 4 티니안으로 출발 → JC카페에서 점심 식사 → ATV 타고 롱비치 투어 → 비치 바비큐를 즐기며 소원을 담은 풍등 날리기 → 티니안 호텔 & 카지노에서 카지노 즐기기

DAY 5 사이판으로 이동 →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TRAVELLER'S TIP

마리아나 제도 여행을 위한 기본 정보

✈ GETTING THERE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천과 부산에서 사이판까지 항공편을 연결한다. 티니안은 사이판에서 국내선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갈 수 있다. 스타마리아나가 하루 네 편 운행, 로타 역시 사이판을 거쳐 갈 수 있으며 프리업 에어에서 하루 두 번 사이판과 로타 사이를 잇고 있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CLIMATE 사시사철 온화한 열대 기후다. 하루 평균 기온은 섭씨 27도, 습도 70퍼센트 이상이며, 연중 기온 차가 1~2도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 5월쯤이 가장 화창하다. 다이빙을 할 계획이면 북동풍이 불지 않아 북쪽 다이빙 포인트까지 섭렵할 수 있는 5~7월, 서풍을 즐길 계획이면 파도가 좋은 1~2월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VISA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출입국 카드만 작성하면 통과. 단, 여권 만료 기간이 18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체류 연장을 원할 때는 현지에서 최장 6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자여권 소지 후 ESTA 등록을 마친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미국 비자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 LANGUAGE 외교와 국방이 미국 관할하에 있으므로 공용어는 영어, 차모로어, 캐롤리니언어다. 관광객 대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나 원주민은 일상에서 차모로어와 캐럴리니언어를 사용한다. 간단한 차모로어를 배워가면 도움이 된다. 하파 데이 Hafa adai(안녕), 시 주우스 무아세(yu'us ma'ase(감사합니다).

💰 CURRENCY 1976년 미국과 마리아나 제도 협약이 이루어졌고 1986년 유엔의 신탁통치가 종결되면서 마리아나 제도 주민은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고로 미국 달러와 센트를 쓴다. 지폐의 종류는 본토와 같다.

📱 MORE INFO 마리아나 제도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자세한 정보는 마리아나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판, 티니안, 로타를 더욱 쉽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가진 하나투어에 문의할 것.

WEB 마리아나관광청 www.MyMarianas.com
하나투어 www.hanatour.com

MARIA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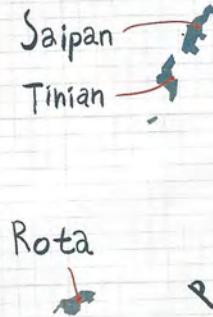
SAIPAN



TINIAN



ROTA



PACIFIC



SAIPAN

사이판

마리아나 제도는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3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서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다. 크고 작은 4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판, 티니안, 로타 이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사이판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지형으로, 남북 길이 약 2킬로미터, 동서 길이 약 8.8킬로미터다. 산호초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면서 형성된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평지인 섬 서쪽에 마을과 도심인 가라판이 있어서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닿는다.



TIN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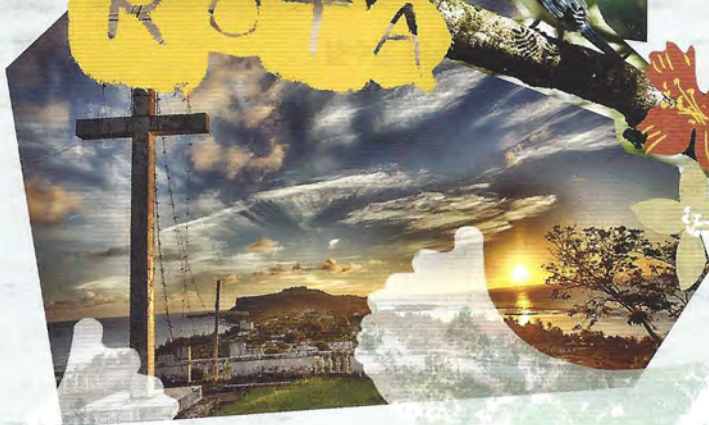
티니안

사이판에서 5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으며 경비행기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사이판이 도시라면 티니안은 시골이다. 차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 남짓인 작은 섬이다. 대신 어느 곳보다 맑고 깨끗한 바다가 있다.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 등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다. 동쪽 바다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1만 900미터의 마리아나 해구가 길게 뻗어 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로타

로타는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이 섬에 사는 새보다 인구가 적은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야생 조류 보호구역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거주하며 숲 속엔 코코넛 크래브, 시슴이 살고 있다. 길가에 자라는 바나나가 노랗게 익었다면 따 먹는 사람이 주인이다. 사이판과 티니안에 비해 원주민의 비율이 높고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적다. 마주 오는 차량을 향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손을 흔드는 것은 이곳 특유의 문화다.

ROTA



Family
Vacation

SAIPAN

PLAY

사이판, 사계절 여름 바캉스

사이판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가족여행 vs 도전을 불사하는 젊은 피를 위한 짜릿한 액티비티 투어



1 선셋 크루즈

바다 위 선상 파티를 꿈꾼다면 선셋 크루즈Sunset Cruise에 탑승할 것. 오후 5시 30분 마리나에서 기적 소리가 울리면 파티가 시작된다. 배는 서쪽으로 노을을 찾아 떠날 예정. 호스트는 제리라는 이름의 가수다. 기타를 메고 귀에 익은 팝송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밀려온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방금 그릴에서 구운 바비큐 디너가 서빙된다.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기본. 미리 주문하면 차킨으로 바꿀 수 있고 어린이용 식사는 따로 준비된다. 음료와 맥주는 무한으로 제공된다. 게 반값이다.



2 딥스타 잠수함

딥스타Deep Star는 사이판 유일의 잠수함으로, 우리를 전문 다이버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해저 25미터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동그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바다의 세계가 신비롭다. 물고기들은 자기네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산호 틈에서 먹이를 발견하고 때로는 큰 볼에게 도망을 다닌다. 바쁘다. 마나가하 섬 인근으로 접근하면 제2차세계대전 때 침몰한 군함과 격추된 비행기의 잔해도 볼 수 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아가 가장 좋다.

OPEN 오전 9~11시, 오후 1~4시, 매시 정각마다 출발



3 스트리트 마켓

사이판엔 상설 시장이 없다. 일주일에 딱 하루 목요일 저녁에 가라판 인근 공터에 장이 선다. 오후 6시 무렵이면 외식에 나선 현지인 가족들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다. 조개껍데기를 붙여 만든 접시, 나무를 깎아 만든 코코넛 크래브 등 공예품을 파는 매장부터 채소 코너까지 품목은 다양하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음식 코너. 즉석에서 구운 꼬치, 닭살, 스펀 무스비, 해산물 볶음 등 국적을 불문한 요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시장 한가운데의 무대에서는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온다.

OPEN 목요일 오후 6~9시 LOCATION 가라판 교회 맞은편

Friends Getaway



1 그로토 스쿠버 다이빙

117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하늘이 뚫린 작은 동굴이 나온다. 이곳이 바로 세계 다이버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는 그로토Grotto, 사이판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로, 신비로운 로열 블루빛 바닷물이 넘실댄다. 바닷속 동굴과 터널을 탐험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물의 빛깔을 만끽하자. 이곳의 포인트는 형형색색 산호나 열대어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다. 터널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면 제 모습을 바꿔 형언하기 힘든 색으로 빛난다.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 다이빙과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파도가 센 날은 미끄러운 암초 위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LOCATION** 사이판 북부 그로토 드라이브

2 마나가하 섬 패러세일링

사이판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마나가하 섬Managaha Is. 투어다. 푸른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그 위의 작은 섬. 섬에는 노란 라이프 가드 초소와 색색의 파라솔,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선 다이빙,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중에서도 패러세일링을 추천한다. 하늘 높은 곳에서 마나가하 섬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 마나가하 섬 인근 바다 위에서 낙하산을 타고 15미터까지 날아 올라간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동동 떠다니며 미니어처처럼 보이는 사이판을 감상하도록!

LOCATION 사이판 서쪽 해안 마나가하 섬



3 정글 투어

사륜구동을 타고 사이판의 속살을 돌아보는 기회. 동쪽 해안에 위치한 제프리스 비치Jeffrey's Beach, 타포차우 산Tapochau Mt. 정상, 열대 과일 농장을 돌아보는 코스다. 일반 렌터카로 움직이기 힘든 비포장 도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와 함께 정글 투어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베테랑 가이드가 함께 다니며 사이판에 내려오는 전설과 뷰포인트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더욱 좋다. 기암괴석이 가득한 제프리스 비치와 사이판이 360도로 보이는 타포차우 산 정상(해발 473미터)을 거쳐 농장에서 코코넛과 열대 과일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



4 샌드 캐슬 매직쇼

샌드 캐슬 매직 쇼Sand Castle Magic Show는 20년 전 관에서 처음 마술 쇼로 시작해 2002년 사이판에 상륙했다. 환상적인 마술 쇼와 색다른 무희들의 춤, 화려한 무대 장치와 호랑이의 출현에 한시도 긴장을 놓칠 틈이 없다. 친구들과 깔깔대며 보기에 손색없는 엔터테인먼트다. 샌드 캐슬 쇼룸은 총 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연은 저녁 식사를 겸하는 디너 쇼와 칵테일 쇼,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OPEN 오후 7시~8시 15분, 오후 8시 45분~10시, 월, 목요일 휴무
LOCATION 하얏트 리젠스 사이판 내 샌드 캐슬 쇼룸



5 아쿠아바이크

아쿠아바이크AquaBike는 물속에서 탈 수 있도록 고안된 1인 잠수정이다. 커다란 헬멧에 산소통이 달려 육지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아쿠아바이크 1대 당 다이버 1명이 따라붙어 바닷길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스테프가 나눠준 소시지를 조금씩 떼어서 물고기를 유인해보자. 열대어들이 뱃새를 말고 금세 아쿠아바이크 주위로 몰려든다. 헬멧을 사이에 두고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눈이 마주친다. 참고로 산소가 공급되는 헬멧을 쓰고 바다로 뛰어드는 또 다른 액티비티로 시 워커sea walker가 있다.

Family Vacation



1 컨트리 하우스 레스토랑

컨트리 하우스 레스토랑 Country House Restaurant은 외관부터 미국 서부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컨트리 하우스 레스토랑의 자랑은 앵거스 비프를 만든 스테이크다. 미국의 광대한 목장에서 자란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더욱 맛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젊은이들이 서빙하며 더욱 분위기를 돋운다. 점심시간에는 베이비 백 립, 햄버그스테이크가 인기고 로컬 레몬을 사용한 잠발라이도 준비돼 있다. 저녁 식사 전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바에서 칵테일을 한 잔 들이켜면 소고기를 맛볼 준비 완료. 쌀고 맛보고 감탄할 일만 남았다.

OPEN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 30분~10시 PRICE 햄버그스테이크 14.5달러, 텐더로인 스테이크 30달러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1908



2 하드록 카페

전 세계 150여 개 매장을 가진 유명 레스토랑.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메뉴로 매력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사이판 지점은 중앙의 둥근 바와 스포츠카를 중심으로 꾸었다. 벽에는 유명 스타들의 흔적이 빼곡하다. 마돈나가 <머티어리얼 걸(Material Girl)>을 불렀을 때 입은 드레스, 폴 매카트니가 <더 선The Sun> 표지를 찍었을 때 입은 스트라이프 슈트 등 귀중한 컬렉션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스테이크, 버거, 샌드위치, 칵테일, 음료가 즐거움을 더해준다. 대형 쇼핑을 내부에 있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레스토랑.

OPEN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 PRICE 텍사스 티본스테이크 37달러, 치즈 버거 13달러, 치킨 샌드위치 16달러 LOCATION T 갤러리아 내부 TEL +1-670-233-7625

EAT 사이판에서 뭐 먹지?



3 모비딕

가라판에 위치한 레스토랑 모비딕 Moby Dick은 멜빌의 동명 소설에서 이름을 따왔다. 가게의 모습은 마치 19세기 미국의 항구도시에 존재했던 소박한 식당 같다. 당연히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자랑. 근해의 록 로브스터와 미국에서 공수한 로브스터의 탱탱한 속살을 반드시 맛볼 것. 로브스터 그라탕, 구운 로브스터에 케이준 소스를 올린 뉴올리언스식 로브스터 요리 등이 다양하게 선보인다. 근해에서 잡아 올린 오늘의 생선을 손님의 취향에 맞게-튀기거나, 굽거나, 찌거나-조리하는 로컬 생선 요리도 추천 메뉴다.

OPEN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6~10시 PRICE 로브스터 뉴올리언스 27달러, 구운 로브스터와 안심 스테이크 56달러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1910



4 아메리칸 피자 & 그릴

씨스타의 <Swear>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피자집을 기억하는가? 바로 아메리칸 피자 & 그릴 American Pizza & Grill이다. 체크무늬 식탁보 등으로 캐주얼하게 꾸며진 이곳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들어와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다. 미국 문화권인 사이판에서 피자와 햄버거야말로 현존의 술 푸드라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맥도날드와 비교하면 섭섭하다. 옛날 방식대로 정성을 담아 만들기 때문. 패스트푸드보다는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준 피자, 햄버거 같은 느낌이다. 대형 유리잔에 서빙되는 아이스티가 인기다.

OPEN 오전 8시 30분~오후 10시 PRICE 체프 셀러드 11.95달러, 클래식 버거 8.95달러, 피자 13~30달러, 치킨 플레이트 13.5달러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1180~1

Friends Getaway



1 올레아이 비치 바 & 그릴

올레아이 비치 바 & 그릴 Oleai Beach Bar & Grill과 바다 사이에는 나무 한 그루 지라지 않아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기 좋다. 저녁 식사 전이라면 풍부한 육즙이 배어 있는 햄버거나 스테이크, 배가 부르다면 타코나 케사디아 등 간단한 멕시코 주전부리를 추천한다. 노을이 질 무렵 바다를 배경으로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오후 2시에서 7시까지의 해피 아워로 맥주는 0.75달러, 다른 리큐어는 1달러가 할인된다. 참고로 올레아이는 원주민들이 산호세 지역을 부르는 지명이다.

OPEN 월~토요일 오전 11시~밤 12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10시 30분 **PRICE** 생맥주 3.75달러, 칵테일 6달러, 타코 5.5달러 **LOCATION** 산호세 **TEL** +1-670-234-0228



2 자바 조스 커피 & 에스프레소 바

새벽에 커피 생각이 간절할 때, 진짜 맛있는 프라페 음료를 맛보고 싶을 때 자바 조스 커피 & 에스프레소 바 Java Joe's Coffee & Espresso Bar로 향하자. 이곳은 현지인의 사랑을 받는 커피숍. 자리도 널찍하고 와이파이드 무료로 제공한다. 가라판에서 자동차로 10분, 공항으로 가는 도로가인 단단 조텐 슈퍼마켓 맞은편에 위치한다. 에스프레소 콘파나, 카페 라테, 카푸치노, 아이스 모카 등 에스프레소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판매한다. 머핀과 스콘, 에클레어, 치즈 케이크 등 그날그날 구운 베이커리도 맛있다.

OPEN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PRICE** 카푸치노 3.5달러, 민트 칩 프라페 4.25달러, 치즈 케이크 3.75달러 **LOCATION** 단단 빌리지 단단 푸드 코트 **TEL** +1-670-235-5098

미국식 만찬을 즐기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vs. 친구들과리 수다 떨기 좋은 디저트 숍과 바



3 카페 윈첼스

미국의 도넛 왕으로 불린 번 윈첼의 윈첼 도넛이 사이판에도 있다. 가라판 피에스타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 윈첼스 Cafe Winchell's 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장점. 한밤중 출출한 배를 달래기에 커피와 도넛만큼 좋은 것도 없다. 물론 낮 시간, 물놀이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도 손색없다. 1948년부터 이어져온 윈첼의 도넛은 길모습부터 구미를 당긴다. 쇼윈도에는 미니 도넛부터 코코넛을 올린 도넛, 우리나라 파배기처럼 생긴 도넛 등이 손님을 유혹한다. 그뿐만 아니라 벤토 박스, 샌드위치 등도 있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

OPEN 24시간 **PRICE** 올드 패션 도넛 1.2달러, 시나몬 롤 1.3달러, 도넛 & 커피 콤보 4달러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4-5566 **WEB** winchells.com



4 갓 파더스 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서양 스타일의 바. 외벽에 그려진 <대부>의 주인공 돈 콜레오네의 벽화가 인상적이다. 갓 파더스 바 God Father's Bar에 들어서면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를 맨 웨이트리스들이 경쾌하게 맞이한다. 내부도 역시 <대부>의 포스터와 명대사 등으로 꾸며져 바 주인이 영화의 열혈 팬임을 알 수 있다.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해피 아워로 술과 음료를 할인된 가격에 팔며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라이브 연주가 이어진다. 특히 갓 파더스 바 표 특제 예거밤을 추천한다.

OPEN 월~금요일 오후 4시~새벽 1시, 토, 일요일 오후 5시~새벽 1시 **PRICE** 빙맥주 4~6달러, 예거밤 6달러, 버펄로 워 7달러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5-2333 **WEB** godfathersbar.com

Family Vacation



1 아이 러브 사이판

사이판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아이 러브 사이판 Love Saipan에 모두 모였다. T 갤러리아 바로 옆, 그에 못지않은 규모로 사이판을 기념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대형몰이다. 아이 러브 사이판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 컵, 인형, 키홀더 등이 히트 상품. 사이판의 향기를 그대로 담아가고 싶다면 사이판 조개 모음이나 코코넛으로 만든 그릇, 소원을 들어주는 보조보 인형을 구매할 것. 보조보 인형은 원주민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공예품으로, 인형의 팔을 앞으로 묶으면 재물 운, 뒤로 묶으면 사랑 운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OPEN 오전 9시~오후 11시 LOCATION 가라판 비치 로드 TEL +1-670-233-3535
WEB starsandsplaza.com



2 조텐

사이판 최대의 슈퍼마켓, 조텐Joten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꼬마들을 위한 과자, 신선한 과일, 각국에서 수입한 크래프트 맥주는 물론 속옷, 티셔츠, 물놀이 용품 등 생필품에서 기념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준비돼 있다. 한국에서 깜빡하고 놓고 간 물건이 있더라도 조텐으로 달려가면 되니 걱정 끝. 관광객을 위해 계산대 바로 옆 매대에 마리아나 특산품을 모아놓았으니 눈여겨보자. 티니안의 고추 도니살리로 만든 매운 양념, 면바다의 깨갠 바닷물로 만든 마리어나 소금, 사이판산 말린 그린 망고도 판매한다. 조텐은 하파다이 호텔 바로 옆에 있다.

OPEN 오전 8시~오후 11시 LOCATION 가라판 하파다이 쇼핑센터 안, 수수페, 단단
TEL +1-670-234-7596

SHOP 쇼핑 앤 더 시티



3 T 갤러리아

가라판 비치 로드 중심에 자리한 사이판의 랜드마크, T 갤러리아T Galleria는 명품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면세점이다.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크리스찬 디올 등 명품 브랜드가 모인 부티크 갤러리아 발리, 투미,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등이 입점한 패션 월드, 클리안스, 디올, 랑콤, 에스티 로더 등 화장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뷰티 월드,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프트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쪽 사이판의 특별 부스에서는 판다 형상을 하고 코뿔소의 뿔을 단 사이판의 마스크트, 사이판다를 판매한다.

OPEN 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 LOCATION 가라판 비치 로드 TEL +1-670-233-6602
WEB www.dfs.com



4 크레이지 토이즈

크레이지 토이즈Crazy Toys, 장난꾸러기들을 위한 나라가 여기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 날아온 장난감의 천국이다. 바지를 내리면 오줌을 누는 인형, 꼭지를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펜, 눈이 그려진 안경, 가짜 코, 똥침을 당하는 불핀꽃이 등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아이디어 장난감부터 트랜스포머, 레고 등 아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만날 수 있다.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도 있다.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무선 헬리콥터가 놓인 곳과 으스스한 곳에 숨겨둔 성인용품 코너에서는 이빨의 자국이 열릴 거다.

OPEN 낮 12시~오후 10시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4-6446



Friends
Getaway



1 로코 부티크

'선글라스와 수영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건 여자라면 모두 공감할 거다. 서태평양 섬나리를 방문했으니 그에 맞는 수영복을 입어줘야 하는 법. 여자들이여, 그럴 때면 가라판 하피다이 쇼핑센터 내에 있는 로코 부티크Loco Boutique로 가보자. 로코 부티크는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여성용 수영복 전문 브랜드다. 하와이, 괌, 사이판, 오키나와에 지점이 있다. 비키니, 원피스 수영복, 스웜팬츠, 수영복 위에 걸칠 커버 업 등 다양한 종류의 비치웨어와 해변 용 돗자리, 피크닉 가방 등 실용적인 아이템을 판매한다.

OPEN 오전 10시~오후 10시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5501
WEB www.locoboutique.com



2 마리아나 오션

마리아나 오션Mariana Ocean은 2014년에 탄생한 마리아나 제도의 코즈메틱 브랜드로 남국의 자연을 소재로 건강한 화장품을 만든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자란 무농약 허브, 꽃, 열매에서 채취한 에센셜 오일과 플로럴 워터가 주재료.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핸드메이드 비누다. 매장에 있는 60여 가지 비누의 향기를 맡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사이판을 연중 하얗게 물들이는 꽃 플루메리아의 진액으로 만든 비누는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허비스커스 비누에는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OPEN 낮 12시~오후 11시 LOCATION 가라판, 마리아나 리조트 & 스파 내
TEL +1-670-322-0770, +1-670-233-0418 WEB www.marianaocean.com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사이판에서 기념품 쇼핑을 즐기는 완벽한 방법 vs. 여심을 훔친 남국의 패션과 뷰티에 관한 모든 것



3 메이드 인 사이판

가라판에서 10년 넘게 장수하는 기념품 숍이다. 가게 이름처럼 사이판에서 만든 아가자기한 소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메이드 인 사이판Made in Saipan의 대표 상품은 사이판에서 재배한 노니로 만든 유기농 브랜드 킹피셔스 노니Kingfisher's Noni. 노니는 원주민이 신의 선물이라 부르는 열매로 삼푸, 클렌징 오일, 보디 밤, 입욕제 등 뷰티 용품의 주재료가 된다. 또 한 땀 한 땀 손으로 빚은 수공예품도 눈에 띈다. 코코넛으로 만든 돼지저금통, 조개로 만든 조각품, 과일 열매로 만든 핸드메이드 목걸이 등 의미 있는 선물을 찾는 이에게 제격이다.

OPEN 오전 11시~오후 9시, 일요일 휴무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6233



4 와일드 웨스트 기프트 숍

미국 서부극에 등장할 것 같은 인상적인 외관만큼 판매하는 물건도 독특하다. 와일드 웨스트 기프트 숍Wild West Gift Shop에서는 웨스턴 스타일의 액세서리와 인디언의 영혼이 담긴 듯한 소품들을 판매한다. 통가죽으로 만든 카우보이 모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집어갈 수 있는 기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짐들기 전 창문에 걸어놓고 자면 나쁜 꿈을 걸러준다는 드림캐처Dreamcatcher다. 그 밖에 미국 인디언의 형상을 딴 캐치나Kachina 인형과 인디언 전설에 등장하는 그들의 신 코코펠리Kokopelli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OPEN 오후 4시 30분~10시, 목요일 휴무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3-1912

Family Vacation



1 사이판 월드 리조트

사이판 월드 리조트 Saipan World Resort는 5년 전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인 한화호텔 & 리조트가 인수해 새롭게 거듭났다. 체크인을 하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워터파크 웨이브 정글로 뛰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 높이 2미터의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 풀을 비롯해 유수 풀, 아라 어드벤처, 플레이 풀, 태닝 풀, 스쿠버 풀 등 6가지의 풀과 끝이 보이지 않는 워터코스터와 물회오리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스릴 만점의 블랙홀, 보디 슬라이더, 튜브 슬라이더 등도 즐길 수 있다.



LOCATION 수수페 TEL +1-670-234-5900(현지), 02-729-5927(한국사무소)
WEB www.saipanworldresort.com



2 PIC 사이판

PIC는 숙박, 전 일일 식사, 레저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강습 등 모든 것이 제공되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로 유명하다. PIC 사이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판 서남쪽 샌안토니오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객실, 각국의 산해진미를 갖춘 레스토랑과 함께 40여 가지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 4~12세 미만 어린이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역시 어린이 대상의 윈드서핑, 테니스 강습 등을 영어로 진행해 영어 실력까지 키울 수 있게 했다.



LOCATION 샌안토니오 TEL +1-670-234-7976 WEB www.pic.co.kr

STAY 사이판, 호텔에서 노는 법



3 코럴 오션 포인트 리조트 클럽

코럴 오션 포인트 리조트 클럽 Coral Ocean Point Resort Club은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들어선 골프장이 이곳의 자랑. 프로 통상 40승에 빛나는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프로 골퍼 래리 넬슨이 사이판 남서부의 지형을 살리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총거리 7156야드로 사이판 내에서 가장 길다. 18홀의 골프 코스는 로키 해안에 근접하고 있으며 7번 홀과 14번 홀은 티잉 그라운드와 홀 사이에 바다가 있어 특히 아름답다.



LOCATION 로키 TEL +1-670-234-7000(현지), 02-730-7284(한국사무소)
WEB copspn.com



4 라오라오베이 골프 & 리조트

세계적인 프로 골퍼 그레그 노먼이 디자인한 라오라오 베이 골프 클럽이 라오라오베이 골프 & 리조트 Lao Lao Bay Golf & Resort의 꽃이다. 사이판 유일의 36홀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웨스트 코스의 타포처우 산을 배경으로 한 넓은 페어웨이가 인상적. 훈훈하고 드넓은 남국의 이국적인 정취 속에서 시원하게 샷을 날릴 수 있다. 3가지 타입의 총 53개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객실에서는 바다 또는 골프 코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섀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더 다이닝 데크도 있다.



LOCATION 라오라오베이 TEL +1-670-236-8888(현지), 02-725-5399(한국사무소)
WEB www.laolaobay.com

Friends Getaway



1 마리아나 리조트 & 스파

마리아나 리조트 & 스파 Mariana Resort & Spa의 콘셉트는 자연, 건강, 휴식이다. 이에 걸맞게 만디 아시안 스파는 사이판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건물 안에 수영장과 마사지 룸, 자쿠지 등을 갖춘 남태평양 최대의 시설에 놀랄 준비를 하시라. 12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하며 어른들에게만 진정한 휴식을 제공한다. 스파의 기억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리조트 내 코즈메틱 스킨 마리아나 오션에서 마리아나 제도의 자연 재료만을 이용해 만든 핸드메이드 비누를 골라보자.

LOCATION 마르피 **TEL** +1-670-322-0770(현지), 02-738-8028(한국사무소)
WEB www.marianaresort.co.kr



2 피에스타 리조트 & 스파 사이판

하얏트 리젠시와 마이크로 비치 백사장을 공유하고 있는 피에스타 리조트 & 스파 사이판 Fiesta Resort & Spa Saipan, 오션 뷰와 이그제큐티브 룸 7가지 타입, 416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우스윙 7층은 레이디스 룸으로 꾸며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테마 런치 뷔페를 선보이는 월드 카페, 정통 음식과 데판야키를 맛볼 수 있는 마이, 중식당 더 번드,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참브레 바, 미니 커피숍 르 카페 등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세계 각국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4-7022(현지), 02-735-2880(한국사무소)
WEB www.fiestaresort.co.kr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호텔 vs. 미식과 스파가 당신과 친구들을 구원할 호텔



3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

산로케의 낭만적인 해변과 300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진 아늑한 정원 사이에 코티지 스타일의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 Aqua Resort Club Saipan이 숨어 있다. 총 8채의 2층짜리 발리풍 코티지에는 57가지 타입, 97개의 객실이 있다. 리조트 곳곳에는 슬로 여행자를 위한 배려가 가득하다. 가족 풀과 다이빙 풀로 나누어진 수영장 내 바에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우아하게 앉아 쉴 수 있으며 프렌치 레스토랑 리라에서는 유러피언이 된 기분을 낼 수 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친환경 콘셉트의 스파에서 여유를 부리고 해변의 가제보에서 독서를 즐기는 건 덤이다.

LOCATION 산로케 **TEL** +1-670-322-1234 **WEB** www.aquasaipan.co.kr



4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 Hyatt Regency Saipan은 사이판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이크로 비치를 정원으로 삼는다. 7층 건물 내 총 311개 객실은 모두 오션 뷰를 자랑하는데, 고운 백사장이 보이는 객실에서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변화기인 가라판이 가까운 것도 장점. T 갤러리, 아이 러브 사이판 등의 스킨 레스토랑, 커피숍, 대형마트가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가라판에서 바 호핑 bar hopping을 하며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도 안성맞춤. 휴양지도 도심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고 싶은 여행자에게 추천한다.

LOCATION 가라판 **TEL** +1-670-234-1234 **WEB** saipan.regency.hyatt.kr



도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FESTIVAL 마리아나의 축제

1

사이판 마라톤 축제

사이판/3월 세계의 아름다운 땅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사이판의 멋진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는 기회다. 사이판 마라톤 축제 Festival of Runs는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대회다. 풀 코스, 하프 마라톤, 50킬로미터, 10킬로미터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10킬로미터 마라톤에 도전해보라. 뛰다가 걸어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결승선을 넘을 때의 기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2

티니안 핫 페퍼 축제

티니안/2월 티니안 핫 페퍼 축제 Tinian Hot Pepper Festival는 고추 도나살리를 테마로 한 축제다. 도나살리는 티니안의 정글 도처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고추. 크기는 비타민제 정도로 작은데 조금만 씹어도 입안에서 불이 난다. 현지인은 밥에 도나살리 소스와 간장을 섞어서 비벼 먹는 걸 좋아한다. 축제 기간 동안 현지 음식과 공예품 등을 전시하며, 원주민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매운 고추 먹기, 노래 자랑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가 열린다.

3

사이판 국제 스노클링 대회

사이판/6월 사이판 국제 스노클링 대회 Saipan International Open Water Flipper Tournament는 아름다운 마나가하 섬에서 열린다. 대회 전에 아일랜드 스타일 조식이 제공되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상 파티가 열린다. 사이판 스노클링의 최적지인 마나가하 섬은 가시거리가 30미터나 될 정도로 바닷물이 맑아 각종 산호와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다. 대회는 마나가하 섬 주위 1.5킬로미터를 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밖의 축제들

사실 마리아나는 철인 3종 경기를 위해 존재한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여, 마리아나로 오라.

커피 트레일 마라톤 대회 사이판/1월
사이판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유적을 만끽할 수 있는 커피 트레일 마라톤 대회 Marianas Coffee Trail Run,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에서 시작해 타포추우 산 정상까지 마이크로 비치에서 끝난다. 레이스 도중 사이판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나무 밀집 구역을 통과한다.

타가멘 철인 3종 경기 사이판/3월
타가멘 철인 3종 경기 Tagaman Triathlon을 소개한다. PC 사이판 앞 해변에서 2킬로미터 수영으로 시작해 섬을 따라 이어지는 60킬로미터 산악자전거 코스로 넘어가며, 사이판 중심부의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15킬로미터 달리기 코스로 마무리된다.

엑스테라 챔피언십 사이판/3월
해변에서의 1.5킬로미터 수영을 시작으로 타포추우 산에서의 산악자전거 30킬로미터, 정글 지역 마라톤 12킬로미터로 구성되는 스포츠 이벤트. 엑스테라 챔피언십 Xterra Championship 입상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리는 엑스테라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마리아나에서는 1년 내내 신나는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체육인이 아니어도 가족, 친구와 손을 잡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한다.



4

플레임 트리 문화 축제

사이판/4월 플레임 트리는 마리아나를 상징하는 나무다. 4월 봄을 맞아 플레임 트리의 붉은 꽃이 만개할 때쯤 플레임 트리 문화 축제 Flame Tree Arts Festival가 열린다. 섬이 붉은 꽃에 뒤덮여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로 사이판, 티니안, 로타, 괌 등 태평양 섬 출신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다양한 전시회를 연다.

5

사이판 국제 낚시 대회

사이판/7월 사이판의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종이 풍부해 낚시할 맛이 난다. 낚시 초보인 필자의 낚시대에도 팔뚝만 한 물고기가 낚이니 강태공이라면 오죽할까. 7월에는 사이판 국제 낚시 대회 Saipan International Fishing가 열린다. 7월의 청새치 시즌을 맞아 강태공들이 실력을 겨루는 낚시 대회다. 휴가철 바캉스도 즐겁고 청새치도 낚는다면 일석이조.

6

마리아나 음식 문화 축제

사이판/5월 5월은 마리아나 음식 문화 축제 Taste of The Marianas 덕분에 사이판이 시끌벅적하다.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에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사이판 주요 호텔과 레스토랑의 요리뿐 아니라 마리아나 지역의 전통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핫도그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차모로족의 전통 음악과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진다. 입장료는 무료.

7

마리아나에서의 크리스마스

사이판/12월 남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12월 말 마리아나를 방문해보라. 과거 스페인의 통치로 천주교 신자가 97퍼센트에 이르는 사이판에서는 성대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다. 오후 4시에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에서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걷기 행렬이 출발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6시 점등식에 이어 학생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티니안 철인 3종 경기 티니안/6월
티니안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 Tinian Turquoise Blue Triathlon & Reel Swim, 리프 스웜은 1.5킬로미터, 3킬로미터, 45킬로미터의 A, B, C 타입으로 구성되며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1.5킬로미터, 자전거 40킬로미터, 달리기 10킬로미터로 구성된다.

로타 블루 철인 3종 경기 로타/11월
로타에도 철인 3종 경기가 있다. 이름하여 로타 블루 철인 3종 경기 Rota Blue Triathlon, 수영 1.5킬로미터, 자전거 40킬로미터, 달리기 10킬로미터로 구성되는 A타입과 수영 2킬로미터, 자전거 90킬로미터, 달리기 21킬로미터로 구성되는 B타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남녀 상위 3등까지 시상한다.

마리아나 사이클링 대회 사이판/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열리는 마리아나 사이클링 대회 Hel of The Marianas-The Century Cycle, 사이판 PIC를 출발점으로, 아름다운 사이판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회다. 100킬로미터, 50킬로미터씩의 2인 릴레이, 25킬로미터씩의 4인 릴레이로 구성된다.

TINIAN

티니안, 차모로족의 주말

사이판에서 6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10분을 날아 티니안에 도착했다. 숙소에 짐을 놓고 곧장 해변으로 직행. 맨몸으로 풍당풍당 투명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원주민들을 보고 그들의 주말에 끼어들었다. 티니안에서 24시간 동안 차모로족처럼 지내는 법.



AM 9:00

타가 비치에서 다이빙에 도전한다

티니안 다이내스티 호텔 & 카지노의 앞바다, 타가 비치Taga Beach는 차모로족의 놀이터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현지인은 이곳에서 다이빙을 즐긴다. 절벽 아래 숨어 있는 계단 위에서 호기롭게 수심 2미터 정도의 푸른 바다로 뛰어든 다음 작은 백사장으로 걸어 나오는 게 타가 비치 다이빙의 정석이다. 낮 평균 수온은 29도지만 준비 운동을 잊지 말 것. 하루에도 수십 번 색을 바꾸는 물빛 중에서도 아침 나절 바다 색이 가장 예쁘다. 티니안의 옛 족장 타가의 전용 비치였다고 알려진 곳으로 무인도인 염소섬을 마주하고 있다. 타가 비치에서 바닷가를 따라 왕복 40분 정도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니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에 산책을 나서도 좋다.



AM 11:00

ATV를 타고 롱비치 투어에 나선다

롱비치Long Beach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지만 시운 오토바이 ATV를 타고 정글을 헤치면 거칠 것이 없다. ATV는 범퍼카와 비슷하게 조작할 수 있어 초보자도 운전하기 쉽다.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가이드와 함께 출발한다. 총 코스는 6킬로미터, 스피드 레이서가 된 기분을 만끽해보자. ATV 정글 탐험대는 수풀 속에 자라는 매운 고추 도나살리를 맛보고 차모로족의 유적이 있는 마살록을 지나 롱비치에 닿는다. 롱비치는 이름 그대로 모래사장이 길게 조성된 아름다운 해변. 초입에 아자수 정원도 잘 가꿔져 있어 쉬어 가기 좋다. 가이드가 측석에서 잘라준 코코넛 워터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면 롱비치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해변을 발견할 차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바위 틈을 비집고 누드 비치에 찾아온 이유는 별 모래를 찾기 위해서다. 백사장의 모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호가 닳아서 별 모양처럼 된 모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행과 오붓한 소풍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PM 12:30

JC 카페에서 차모로족 로컬 요리를 맛본다

JC 카페 JC Cafe는 티니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컬 레스토랑이다. 티니안에서 현지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티니안의 로컬 음식은 원주민인 차모로족과 필리피노의 음식이 섞인 것이 특징. 더운 지역이라서 우리 입맛에는 조금 짭짤하다. JC 카페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다. 프렌치프라이를 곁들인 JC버거와 바스켓에 가득 담겨 나오는 프라이드치킨도 이곳의 자랑. 그 외에도 그날그날 낚시배에서 잡아 올린 생선으로 만든 오늘의 생선 요리, 생크림을 얹은 블루베리 팬케이크, 일본식 덮밥과 햄버그스테이크를 곁들인 벤토가 있다. 한국 사람을 위해 '중가집 김치'를 준비해놓은 센스가 돋보인다.



PM 2:00

블로 홀을 찾아 드라이빙을 즐긴다

섬 북부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블로 홀 Blow Hole이다. 이름 그대로 바람 구멍, '고래 숨구멍'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블로 홀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늘로 물을 뿜어내는 천연 분수다. 산호초 사이에 지름 60센티미터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사이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친다. 파도가 거셀 때는 10여 미터 가까이 솟아오르며 소음을 만들어낸다. 섬의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블로 홀의 왼쪽 옆으로 저 멀리 사이판과 마나가하 섬이 손에 닿을 듯이 보인다. 블로 홀 앞바다는 다이빙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블로 홀을 찾아가는 길엔 섬 중심부를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브로드웨이 Broadway를 지난다. 북에서 남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따라 티니안이 한눈에 들어오니 드라이빙의 맛이 난다. 도로 양쪽의 가로수는 플레이밍 트리. 4~10월 꽃이 핀 계절에 이 길을 지나면 꽃노래가 절로 나온다.



600-6578



PM 4:00

바다로 나가 낚시의 손맛을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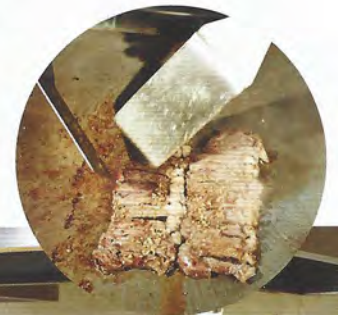
티니안의 진면목을 알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 먼바다에선 물이 맑고 가시거리가 좋기로 유명한 티니안의 바닷속이 더욱 또렷해진다.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기엔 호핑 투어만 한 것이 없다. 티니안의 호핑 투어는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과 낚시를 동시에 즐기는 프로그램. 소시지 하나만 손에 쥐고 바다에 뛰어들면 물고기 떼와 함께 유유히 헤엄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산호 정원도 펼쳐진다. 낚시의 손맛을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 물 반, 고기 반인 티니안의 바다에서는 선무당에게도 입질이 온다. 참치, 외후, 비라쿠다, 돛새치 등 대형 어류가 잡히는 날은 그야말로 잔칫날. 그 자리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를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다. 참고로 티니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는 섬 동쪽에 있는 플레밍 포인트다.



PM 7:00

사가노 데판야키를 뜯고 맛보고 즐긴다

티니안 다이내스티 호텔 & 카지노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 사가노Sagano에는 유명한 저녁 특선이 있다. 바로 데판야키. 파프리카, 호박, 양파 등 신선한 채소로 시작해 근해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과 새우는 물론이고 소고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차례로 널찍한 철판에서 볶아준다. 손님들은 요리사 주변에 빙 둘러앉아 불 소를 지켜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게 된다. 데판야키의 하이라이트는 소고기 요리의 마지막에 이어지는 불 쇼. 보기에든 근사하지만 불 맛을 더한 육류의 식감이 감탄사가 절로 난다. 버터와 마늘을 똑딱 섞어 소스를 만드는 손재간마저 화려하다. 일본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사가노 레스토랑에서는 데판야키 외에 다양한 일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현지인의 가족 모임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Where
to stay



티니안 다이너스티
호텔 & 카지노

티니안을 대표하는 호텔. 2개의 프레지던셜 스위트룸과 22개의 호화 객실을 포함, 객실 412개를 보유하고 있다. 객실에서는 열대 정원에 둘러싸인 수영장, 티니안 남쪽에 위치한 무인도 염소섬을 관망할 수 있으며, 걸어서 5분이면 타가 비치의 에메랄드빛 바다에 뛰어 들 수 있다. 또 호텔 내에는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아케이드와 24시간 개방하는 카지노가 들어서 있어 호텔에서뿐만 아니라 한나절이 후딱 지나간다. 쇼핑 아케이드에 위치한 몬스터 피자에서 티니안 고추를 곁들인 몬스터 피자를 먹는 걸 잊지 말자.

LOCATION 티니안 섬 남쪽, 타가 비치 맞은편
TEL +1-670-328-2233(현지),
02-2075-5590(한국사무소)
WEB www.tiniandynasty.co.kr



PM 10:00

별빛 아래 풍등을 날리며 소원을 빈다

구름이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환상적인 석양이 지나가고 티니안이 어둠에 잠기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밤하늘에 나타나고, 손가락으로 톡 건들면 우수수 떨어질 것만 같다. 티니안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별들은 공평하게 반짝거리지만 '별 보기 투어'에 참여하면 티니안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포인트로 여행자를 데려다준다. 별이 너무 많아 별자리조차 이룰 수 없는 밤하늘 아래서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800년 전 우주에서 출발한 북극성의 빛을 찾아보자. 그 자리에서 풍등 날리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커다란 종이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라 또 하나의 별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원을 빌게 된다.





로타, 나를 부르는 자연

남태평양의 풍요로운 자연을 독차지하고 싶다면 로타로 향할 것. 평당 인구보다 야생 조류 밀도가 더 높은 섬에서는 시간마저 게으름을 부린다. 유리병에 담아 오고 싶었던 로타의 히든 플레이스 6곳.



스위밍 홀

스위밍 홀(Swimming Hole)은 바닷가의 암초로 둘러싸인 천연 수영장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방파제가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덕에 잔잔한 물살을 헤치며 유유히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바닥도 모래로 되어 있으니 로타 최고의 수영장이라 할 만하다. 날이 좋으면 암초를 넘어온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 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바다에서 물이 솟아나는 독특한 지형과 바위 위를 기어가는 게, 소리들을 관찰할 수 있다.

HOW TO GO 섬의 북쪽, 로타 리츠트 & 킨토리 마을 가까이 있다.
TIP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만조일 때나 파도가 거칠게 치는 날은 일출 너머로 물이 들어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테테토 비치

로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다. 최고 고운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 테테토 비치 Teletto Beach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아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 로타의 북쪽 바다는 2가지 색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 가까운 바다는 연한 옥빛, 먼바다는 짙은 코발트빛을 띤다. 옥색으로 빛나는 근해의 수심은 무릎까지 찰방일 정도로 얕으므로 해수욕하기에 최적이다. 단, 파도에 휩쓸려온 산호가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파 슈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HOW TO GO 북쪽 해안 도로 로타 호텔과 구와타 비치 사이에 있다. 표지판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지니, 모래가 고운 해변이 바로 당신이 누울 자리다.

TIP 해변에 비치 파라솔 등 햇볕을 가릴 만한 것이 없어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준비할 것.



버드 생추어리

고요한 아침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단잠을 깨고, 해변에 누우면 나무에 앉은 새들이 나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는 곳. 버드 생추어리 Bird Sanctuary는 로타에 서식하는 새들의 집이다. 수평선이 보이는 전망대 아래 계단은 새들의 보금자리 가까이로 인도한다. 가까호호 다정한 어미새와 아기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니 망원경을 챙겨가면 좋다.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무렵 이곳에 가면 새들이 비행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날개가 푸른 흰목물총새, 발이 붉은 붉은발털가니새가 살고 있다.

HOW TO GO 마을과 동떨어진 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비포장 도로가 포장 도로로 바뀌어 한걸 찾아가기 쉬워졌다.

TIP 새들은 아침에 먹이를 찾으러 집을 떠나 해 질 녘이 되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방문했다간 빈둥지만 보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스 만모스

어린 야자나무가 늘어선 오프 로드를 한참 동안 달리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쯤 아스 만모스 As Manmos가 모습을 드러낸다. 태평양의 검푸른 파도가 절벽에 부딪쳐 솟아오르는 광경이 장관이다. 특히 이른 아침 파도 입자들이 알알이 부서지는 모습을 역광으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유명한 바다낚시 포인트다. 현지인과 바다낚시에 매료된 여행객들이 즐겨 찾으며, 매년 6월이면 바다낚시 대회가 열린다. 운이 좋으면 수면 위로 숨을 쉬러 올라온 거북을 볼 수도 있다. 로타 사람들은 거북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HOW TO GO 섬의 동쪽 끝에 위치했다. 비포장 도로가 한참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사륜구동 차를 렌트하거나 호텔 투어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TIP 아찔한 절벽 끝에 가드 라인이 없다. 예술적인 셀카에 도전하다 낙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로타 리조트 & 컨트리 클럽

로타에서 유일하게 골프 코스를 보유한 리조트. 로타의 때묻지 않은 자연을 배경으로 18홀의 골프 코스가 펼쳐져 있다. 모든 객실은 2베드룸, 4베드룸, 5베드룸으로 이루어진 리조트형 스위트룸이며, 가든 뷰와 오션 뷰로 나뉜다. 여가 시간엔 수영장에서 선탕을 즐기거나 스노우링 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리조트 내 퍼시픽 레스토랑 & 바에선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로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섬 내 관광과 보트 피크닉, 다이빙, 트롤링 등은 리셉션 데스크에서 예약 하도록!

HOW TO GO 섬의 북쪽, 스노우링 홀 부근에 위치한다.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TIP** 웰컴 드링크로 준비된 코코넛 워터와 로타 고구마의 조합이 환상적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rotaresortgolf.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